

최준희, ♥11세 연상과 웨딩화보 "속 짝 찬 왕자님"

등록 2026.05.04 17:43:14



[서울=뉴시스] 고(故) 최진실의 딸인 최준희가 결혼 소감과 웨딩 사진을 공개했다. (사진=인스타그램 캡처) 2026.05.04.
photo@newsis.com

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전재경 기자 = 고(故) 최진실의 딸인 인플루언서 최준희가 결혼 소감과 웨딩 사진을 공개했다.

최준희는 3일 소셜미디어에 "꼭 맞는 유리구두, 잠을 깨우는 입맞춤보다 공주와 왕자의 나이가 더 중요한 동화가 있던가요"라고 운을 뗐다.

이어 예비 신랑을 향해 "사랑에 중요한 것은 단지 사랑이기에 속이 짝찬 이 왕자님 11번 찍어 제가 데려갑니다"라고 적으며 애정을 드러냈다.

2003년생인 최준희는 오는 16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호텔에서 11세 연상의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.

이날 결혼식 예식의 혼주는 부모님을 대신해 최준희의 친오빠인 래퍼 벤 블리스(최환희)가 맡아 동생의 앞날을 축복할 예정이다.



[서울=뉴시스] 고(故) 최진실의 딸인 최준희가 결혼 소감과 웨딩 사진을 공개했다. (사진=인스타그램 캡처) 2026.05.04.

photo@newsis.com

*재판매 및 DB 금지

©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